

“포수도 공격력 갖춰야 한다”...KIA 안방 구도 바뀌나

백용환 · 김민식 · 한승택 · 이정훈 · 한준수까지 5명 치열한 경쟁

‘통합우승’ ‘2017년과 비교 공격력 현격하게 약해져...타선 힘 생겨야

‘공격형 포수를 찾아라’.
KIA 타이거즈의 안방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공격력을 갖춘 포수들을 원하고 있다. 진갑용 배터리코치는 최근 “이제 포수는 방망이도 잘 쳐야 한다”는 말을 했다. 공격력이 앞선 포수를 기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수비만 좋은 포수를 낙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KIA는 플로리다 캠프 20경기와 귀국 후 자체 연습경기를 치르고 있다. 백용환, 김민식, 한승택, 이정훈, 한준수까지 5명의 포수들이 번갈아 마스크를 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막이 늦어지면서 경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피말리는 내부 경쟁이다.
최근 수 년동안 KIA는 장기집

권하는 주전포수가 없었다. 김상훈-차일목 체제가 은퇴와 이적으로 끝나면서 이흥구(SK 이적)와 백용환이 비통을 받았으나 풀타임 주전은 아니었다. 2017년 SK에서 김민식이 트레이드로 이적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했고 2019시즌은 한승택이 주전이였다.
두 선수 모두 방망이가 문제였다. 한승택은 프로통산 2할1푼3리의 저조한 타격 성적을 내고 있다. 김민식도 2할2푼8리에 불과하다. 매년 공격력 증강을 기대 받았지만 미치지 못했다. 결국 9명의 타선에서 포수의 자리는 공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수비만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작년 말 맷 윌리엄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특히 배

터리 담당도 진갑용 코치로 바뀌었다. 그는 수비와 공격력을 겸비한 삼성 왕조를 이끌었던 포수였다. 통산 타율 2할7푼6리, 154홈런을 기록했다. “이제는 수비만을 믿고 주전으로 기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진갑용 배터리코치의 말이다.
그래서 백용환과 이정훈이 주목 받고 있다. 백용환은 통산 타율 2할1푼1리에 그쳤지만, 2015년 10홈런과 장타율 4할6푼8리의 파워를 보여준 바 있다. 이정훈은 고교 시절 뒤늦게 포수로 변신한 탓에 수비력을 떨어지지만 타격은 일품이다. 공격력은 두 포수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식과 한승택은 공격력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KIA가 공격형 포수를 주목하는 데는 고민이 숨어있다. KIA 타선



은 통합우승을 달성한 2017년과 비교해 현격하게 약해졌다. 당시는 7명의 3할타자가 있어 포수가 부진해도 문제 없었다. 이후 로저 베나디나 퇴출, 이명기 이적, 이범호 은퇴에 이어 안치홍도 FA 이적하면 서 타선의 힘이 부족 떨어졌다. 이제는 포수도 힘을 보여야 타선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인, 손흥민처럼 군 문제 해결해야...못하면 치명적”

스페인의 스포츠전문 매체 마르카, 이강인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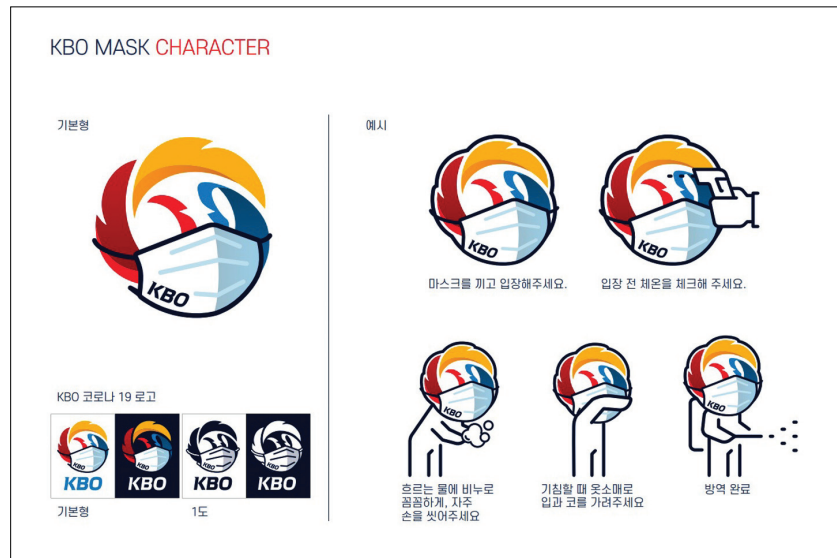


스페인의 스포츠전문 매체 마르카 라리가 발렌시아 소속의 이강인을 조명했다. 손흥민(토트넘)을 예로 들면서 이강인도 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짚었다.
마르카는 6일(한국시간) “손흥민이 그런 것처럼, 이강인도 군 복무 문제와 곧 마주한다”며 두 선수를 소개했다.
먼저 매체는 “손흥민은 축구

열정이 없는 기간을 활용해 한국에서 4주간의 군사기초훈련을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병역특례 조건을 충족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손흥민은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운동선수 중 아시안게임 금메

달리스트와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기초 군사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인 34개월 안에 일정 시간(544시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마르카는 “손흥민은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한국의 일반적인 19세~24세 남자들이 받아야하는 병역 21개월을 면제 받았다”면서 “위기 상황(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귀국한 그는 4주 기초훈련 소화를 위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특수를 경우라는 것을 알렸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이강인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르카는 이제 19세인 이강인의 나이를 언급하며 “28세가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손흥민처럼 특례를 받을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그렇지 못해 군대를 가야한다면) 약 1년6개월의 공백은 선수 입장에서 치명적일 것”이라고 꼭 풀어야할 매듭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쓴 KBO, ‘코로나19’ 확산 방지 · 예방 위한 엠블럼 공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엠블럼을 공개했다.
KBO가 제작한 이번 엠블럼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

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고유의 삼태극 색상인 빨강, 파랑, 노란색의 회오리 문양인 KBO 공식 엠블럼에 방역과 에터켓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입힌 디자인을 적용했다.
캠페인용 엠블럼은 손 씻기와 체온 체크, 방역 등 각종 예방수칙을 표현한 캐릭터로도 제작됐다.
KBO는 “엠블럼과 캐릭터를 KBO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 다양한 제작물에 활용해 방역과 예방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또한 선수단과 야구 팬들의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KBO리그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NS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PL 재개 움직임...英 매체 “6월 ‘무관중’으로 정부와 잠정 합의”

멈춰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의 논의가 진척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데일리 머리는 6일(한국 시간) “EPL과 정부의 논의가 6월

에 리그를 재개하는 것으로 진일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재개 후에도 형태는 정사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을 전망이다. 잔여 일정을 ‘무관중 경기’로 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머리는 밝혔다.

매체는 “보건 당국이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향후 몇 주 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엄격한 지침 아래 리그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 ~ 11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발열체크 받고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